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9.20~2017.9.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깊은 안목으로 해설한 〈금강경〉 최고봉

금강경오가해 강설

학산 대원대종사 강설 | 지선 엮음 | 운주사 펴냄 | 3만 8천원





〈금강경〉을 이해하는 고전적 길잡이
선적 · 교학적 지식과 현대적 해설 돋보여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금강경 오가해(五家解)〉는 금강경을 이해하는 고전적 길잡이, 금강경 공부의 기본 텍스트,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진다. 여기에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니 '육가해(六家解)'가 되고, 다시 학산대원 스님〈사진〉이 강설을 덧붙이니 '칠가해(七家解)'가 되었다. 이 일곱 선지식들의 주석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깊고 바른 안목을 전해줄 것이다.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이다. 당연히 대승불교권인 중국과 한국서도 종파를 떠나 가장 널리 읽히면서 큰 영향을 끼쳤다. 402년 구마라집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된 이래, 육조 스님 당시(700년경)에 그 주석서가 800종이 넘었다 하니, 가히 〈금강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짐작해볼 수 있다.

〈금강경오가해〉는 그 많은 주석서 중 다섯 조사의 주해를 모아 엮은 것으로, 당(唐)나라 규봉 종밀(圭峰宗密)의 〈금강반야경소론찬요(金剛般若經疏論纂要)〉, 당나라 육조 혜능의 〈금강반야바라밀다경해의〉, 양나라 부대사의 〈금강경송〉, 송나라 야부 도천의 〈금강경주〉, 송나라 예장 종경의 〈금강경제강〉이 그것이다. 선과 교의 일치를 주장한 규봉의 주석에는 논리적이고 교학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중국 선종의 6조인 혜능은, 그 자신이 금강경의 구절을 듣고 깨쳤으며, 자성청정한 본심을 강조한다. 혜능으로부터 〈금강경〉이 선종의 소의경전이 되었다. 재가거사인 부대사는 경문에 송을 붙여 표현했는데, 주요하게 지혜바라밀을 강조한다. 임제의 6세손인 야부는 경의 요지를 간결한 선적 언어나 송으로 표현했으며, 주로 평상적인 도리를 드러내 보인다. 종경은 무상을 밝히는 것이 경의 취지이며, 따라서 허망한 상과 지견을 쓸어버릴 것을 권한다.

그리고, 조선조 함허득통 스님이 〈금강경〉 경문과 다섯 조사(주로 야부와 종경)의 주해에 다시 주석을 덧붙이니 이것이 〈설의〉이다. 분량상으로 보아도 함허의 주석이 가장 많고, 내용상으로 보아도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설명으로 경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그의 〈설의〉까지 합해 〈금강경 육가해〉라 칭해도 부족하지 않다. 여기에, 현재 오등선원에 주석하면서 납자들을 지도하는 학산대원 스님이 곳곳에 선적(禪的) 안목으로 현대인에게 맞게 강설을 덧붙이니 이제 현대판 '칠가해'가 된다 하겠다.

〈금강경〉은 역사적으로 한국불교계서 가장 사랑받은 경전인 만큼, 그에 대한 해설서가 속된 말로 발에 치일 정도로 많다. 그리고 다양하게 저술된 책들은 한편으로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보다 폭넓게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금강경의 본체를 보지 못하고 곁가지만 보거나, 전혀 엉뚱한 곳에서 헤맬 우려도 있다. 그래서 항상 중요시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근본이다.

〈금강경〉 해설에 관한 한, 〈오가해〉가 기본이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오가해〉가 엮어질 당시 이미 수천(?) 종에 달했을 금강경 주석서 중에서 가리고 가린 다섯 주석과 해동(조선)선의 안목(함허)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학을 꿰뚫어 대강백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고암 대종사로부터 전법을 부촉받아 눈푸른 납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대원 스님이,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그 가치를 더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학산 대원대종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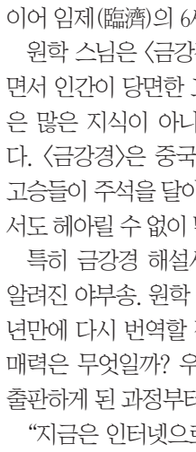
1942년 경북 상주서 태어났다. 14세인 1956년 상주 남장사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 수계했다. 대교를 이수하고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이후 제방선원에서 정진 수행했다. 1973년 해인총림에서 고암 방장실을 참문하고 공부를 점검하던 중 홀연히 깨닫고 오도송을 지어 고암 대종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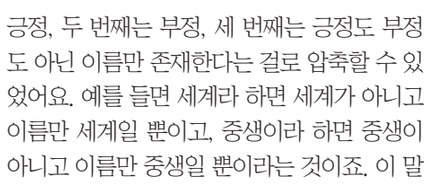
1988년 계룡산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창건하고 오등선원을 열어,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한다.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2013), 대종사(2014), 종정 자문위원(2017)으로 위촉돼 정진한다.

아름다운 이름 남기려면?… "중생도 부처도 모두 돼 봐야"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

원학스님 펴냄 | 모과나무 펴냄 | 1만 8천원





중국 남송시대 야부선사 착어와 송 번역
1996년 첫 출간 이후 윤문 보완해 개정

〈금강경야부송〉을 삼이원학(三耳圓學) 스님〈사진〉이 번역 해설해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중 하나가 〈금강경〉이다. 이 내용을 선적 체험에 의한 견해를 붙이고 경전의 뜻을 정형화된 선시로 읊은 야부선사(冶父禪師)의 착어(著語)와 송(頌)이 〈금강경야부송〉으로 전해진다. 이는 그 뜻이 높고 깊어서 예로부터 선학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수행 지침서가 돼왔다. 야부선사의 생몰 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다만 남송(南宋) 시대의 인물로서 정인계성(淨因繼成, 1101~1125)의 법을 이어 임제(臨濟)의 6세손이 된다.

원학 스님은 〈금강경야부송〉을 번역 해설하면서 인간이 당면한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참지혜'라고 강조한다. 〈금강경〉은 중국불교에 있어서도 수많은 고승들이 주석을 달아 연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해설서가 나와 있다.

특히 금강경 해설서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야부송. 원학 스님이 1996년에 이어, 20년만에 다시 번역할 정도로 이 책에 천착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우선 스님은 두 번에 걸쳐 출판하게 된 과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활자로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첫 출간 당시에는 가리방으로 긁어서 펴냈습니다. 그걸 전국 강원에 다 보내줬지요. 지금 기억하는 첫 출간 시기는 1996년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책을 펴내기 전, 범어사 강사시절 야부송의 내용만 뽑아서 기록하고 가르쳤지, 번역이 제대로 안됐었죠.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번역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할 당시인 1996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사표를 내고 조그만 암자를 지어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루 30~40매에 해당하는 양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1년만에 그 책을 완성한 것이 첫 출간입니다. 그 시절에는 한문을 많이 쓰던 시절이다 보니 한문 모르는 사람은 사실 이 책 읽기가 힘들었죠. 이후 강남 봉은사 주지 시절과 주지직을 내려놓고 나서도 금강경 야부송 법문을 한 2년동안 했죠. 신도들에게 인기가 많아 현대인들이 읽기 쉽게 고쳐서 다시 출판해야 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어 원학 스님은 20년 전 번역하고 지금 번역할 때 맛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금강경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다가, 20년만에 다시 번역하니 금강경 내용을 정말로 모두 체험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하면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내가 이번에 다시 느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간결히 줄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생각해 봤죠. 첫째는 긍정,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름만 존재한다는 걸로 압축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세계라 하면 세계가 아니고 이름만 세계일 뿐이고,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고 이름만 중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으면 현실의 세계, 즉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것이 차이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중생의 입장에선 중생이 중생이지 왜 중생이 아닙니까? 세계서 지위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살아온 형태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현실속의 중생이라 우리가 이름 붙였지만, 부처의 세계서 보면 본래 다 부처다 이것이지요. 본래 부처지, 중생이라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누군가가 이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도, 중생이 스스로 중생이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부처가 스스로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생과 부처를 나누게 됐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속에서의 차별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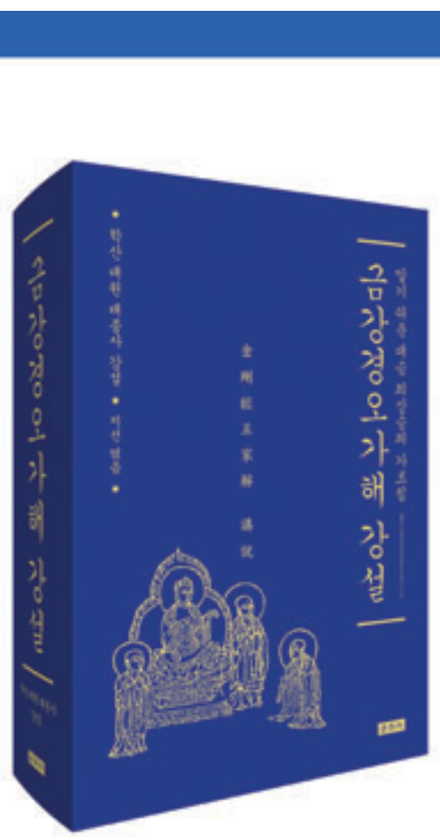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지만, 이 컵이 없어져도 컵이라는 이름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이름을 남겨야 겠죠. 역사 속 위인, 군자라는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원학 스님의 〈금강경〉 법문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도 부처도 아니지만,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정말로 오랜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남아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일러주셨고, 그 법문에 야부 스님이 송을 붙인 것이 야부송입니다. 책을 읽다보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순간이죠. 영원한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생의 입장도 되고 부처의 입장도 돼 봐야지, 어느 한쪽만 고집하면 안되죠."라고 강조했다.

주변으로부터 정인군자(正人君子)란 말을 듣는 원학 스님은 삼국유사의 성지 인각사 주지 를 맡고 있다. 종무행정의 이력도 화려하다. 조계종 총무원 재정국장, 문화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 10,11,12,15대 중앙종회의원, 봉은사, 조계사, 봉국사, 진주 연화사, 대구 용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09년 총무부장을 맡았을 때 스스로 '삼이(三耳)'란 호를 지었다. "총무원 소임은 봉사하는 자리. 즉 머슴살이와 같은데 귀 밝은 머슴이 되기 위해서는 귀가 세 개쯤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2015년 봉은사 주지 소임을 끝으로 현재는 시골 암자서 다도회 모임을 주관해 매주 토요일 강의와 함께 인각사 일연선사의 복원 불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각계 다인(茶人)들과 함께 초의문화제를 창립 발기해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계승하였고, 초의선사의 〈동다송(東茶頌)〉을 번역 해설한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를 2014년에 출간했다. 1996년도에 번역 해설한 금강경 야부송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를 윤문 보완해 이번에 개정 출간 했다.

이 책 제목인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는 야부선사의 게송 가운데 지불책우(智不責愚)라는 말에서 가져온 것이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금강경오가해 강설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을 붙이다!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니 '육가해六家解'가 되고, 다시 학산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이니 '칠가해七家解'가 되었다.

학산鶴山 대원大元 대종사는
1956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 수계했다. 대교를 이수하고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정진 수행 중 홀연히 깨닫고 고암 대종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1988년 학림사를 창건하고 오등선원을 열어,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대종사, 종정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정진하고 있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양장/912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